

# 재미한글학교 학습자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확장형 읽기 고찰 및 적용\*

-읽기 자료 선정을 중심으로-

김 태 진

## Abstract

**Kim Taejin.** 2016. 12. 31.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extensive reading for the reading proficiency improvement of Korean School Learners in the US-Focused on the selection of reading material-**. *Bilingual Research* 65, 31-55. Since the education for overseas Korean language learners is mainly focused on communicative daily expressions, their reading is confined to 'reading a Korean textbook'. Thus 'Extensive reading' is to supplement the insufficiency of reading education for them. This research looks into the reading state, cognizance of extensive reading, and the comparative application between Korean textbooks' level for native Korean learners(READ Measure) and that for Korean School Learners in the US. The research reveals that the criteria for teachers and learners' preference to the choice of reading textbooks are 'interest' and 'learner's level' and that genre is that 'Korean folk tales' are favored by them. And the average score for the comprehension of Korean textbooks by READ Measure is 54.2% and 2.57(out of 5) for the tes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Learn to read series' with simplification and elaboration for overseas Korean language learners.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

---

\*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은 전 세계 약 2,000개 한글학교 학습자(10만 여 명)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 한글학교의 환경 및 학생의 한국어 수준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 대상은 한글학교의 과반이 존재하는 재미한글학교 학생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캐나다, 오세아니아 주, 유럽, 중남미의 학생들 또한 재미동포 학생들과 학습 환경 및 수준이 유사하므로 본 연구를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Key words】** Korean School Learners in the US(재미한글학교 학습자), extensive reading(확장형 읽기), intensive reading(집중형 읽기), Lexile Measure(렉사일 지수), READ Measure(리드 지수)

## 1. 서론

능력 있는 이중언어 구사자의 필요가 급증하고 있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재외동포 후세 또한 고급 문서까지 읽고 쓰기가 가능한 균형적 이중언어자가 필요한 때이다. 그러나 주말 한글학교 교육만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4대 영역 모두 최대론의 입장에서 이중언어 능력을 갖추는 것은 힘든 상황이다. 이들의 한국어 교육은 주말 2~3시간의 한정된 시간에 이루어지고, 한국어 사용 또한 가정에서의 말하기 듣기 중심의 의사소통이 주를 이루다 보니 언어 영역별로 고른 실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이는 재미동포 초급 학습자 TOPIK(13회)을 분석한 결과, 듣기 평균(82.75)이 가장 높고 어휘/문법(78.07), 쓰기(67.86), 읽기(65.48) 순으로 나온 연구(이해영, 2010:28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어 텍스트에 대한 이해력이 가장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읽기는 외국어를 습득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좋은 쓰기 양식과 충분한 어휘력, 수준 높은 문법으로의 발전을 용이하게 해준다(Krashen, 1993). 그렇지만 재미한글학교 학습자 읽기 교육은 교재 내 지문을 읽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읽기 교육 강화 및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시간적, 공간적으로 한정된 교육 환경에서 모국어 수준의 읽기와 같은 자동성(automaticity)과 유창성(read ing fluency)<sup>1)</sup>을 기를 수 없는 점을 감

---

1) 일반적으로 자동성은 인지심리학적으로는 “인식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언어교육학에서는 학습자가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자신이 하고 있는 것’, 즉, 과제 해결에 요구되는 단계 하나하나에 집중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Thornbury, 2006)으로, 읽기에서의 자동성은 텍스트를 읽을 때 언어의 구조에 집중하지 않고도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안할 때, 교실 외 활동으로도 가능하며 재미있고 다양한 읽기 자료를 접하도록 하는 확장형 읽기(extensive reading)는 재미동포 한국어 학습자 읽기 교육의 부재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 판단된다.

확장형 읽기는 영어교육 분야에서는 활발히 연구되어 일찍부터 그 효과가 입증됨은 물론(Elley & Mangubhai, 1981; Brusch, 1991; Elley, 1991; Day & Bamford, 1998; 조경희 외, 2010), 이를 위한 다양한 읽기 교재들이 출판되었고 국외의 제2언어교육 연구(Leung, 2002; Claire & Day, 2004; Nakanishi, 2015)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에서는 2000년이 넘어서 연구되기 시작했고 연구 또한 활발한 편은 아니다. 초기 연구로는 한국어 읽기 교재의 대안으로 확장형 읽기를 제안하고 읽기 교재 제작 기준안을 제시한 김향미(2003)과 읽기 속도 동기가 다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김정하(2007) 및 읽기 자료 등급화, 자료 성격과 범위, 자료 처리, 운영상의 문제 등 열린 읽기 활동의 도입을 위한 전반적인 검토를 한 우형식(2008)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읽기 교육 방안 제시(김경표, 2009) 및 실험 수업을 통해 확장형 읽기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김수정, 2009; 이선영, 2012)가 이어졌다. 또한 우형식·김수정(2011)과 박미영(2013)은 확장형 읽기 활동을 위한 한국어 읽기 자료의 선정과 등급구분을 논하였고, 우형식(2011)은 실제 자료의 단순화에 대한 반성적 접근을 함으로써 읽기 자료 선정과 개발의 문제를 살폈다.

이렇듯 확장형 읽기 연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는 읽기 자료 선정과 개발이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실천적 활동으로, 학습자 스스로 책을 찾도록 그들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읽기 자료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

---

것이다. 그리고 유창성은 ‘정확한 표현과 구(phrasing)로 읽을 수 있는 능력’(Grabe, 2009:73)으로 텍스트를 빠른 속도로 막힘없이 읽어 내려가는 능력이다. 이는 신속한 단어 인식, 빠른 읽기 속도, 많은 읽기 양, 정확한 이해, 점진적인 학습 등의 요소가 포함되는데 이들 요소는 자동성의 발달, 광범위한 어휘 인식, 긴 암시적 학습 기간 등을 필요로 한다(이선영, 2012:172).

이다.) 이는 성인 학습자에 비해 자발적 동기가 약한 재외동포 아동·청소년 학습자를 위한 연구에서 더욱 강화될 분야이나 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확장형 읽기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재미한글학교 학습자의 읽기 현황 및 인식을 살펴봄에 있어 읽기 자료 선정에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국외라는 한계로 인한 자료 제공의 문제, 국내 한국어 학습자만큼 즉각적이고 동시적인 프로그램 실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세심한 환경 및 대안적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기초 조사의 중요성이 크다 하겠다.

## 2. 확장형 읽기와 도서 지수

### 2.1 확장형 읽기와 읽기 자료 개작

집중형 읽기(intensive reading)는 교사의 계획 아래 미리 정해진 순서, 특정한 구조와 어휘의 사용, 모방, 규칙적인 훈련, 통제된 읽기가 그 특징이다. 즉, 정확하고 분석적인 이해를 목표로 하는 읽기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확장형 읽기는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쉽고 재미있는 책을 선택하여 많은 양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읽음으로써 읽기 능력을 비롯한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교육 방법이다. 이를 Krashen(1993)은 ‘자유로운 자발적 읽기(free voluntary reading)’, Palmer(1968)는 빠르게, 많이(book after book) 읽는 것으로 설명하였고 ‘다독’, 혹은 ‘자발적 다독’으로 부르기도 한다(강민혜 2008:25).

또한 Day & Bamford(1998:6)은 제2언어 교수 상황에서 학생들의 언어

---

2) Day와 Bamford(1998)는 이를 ‘책고리 가설(bookstrap hypothesis)’로 설명하고 있다. 책고리 가설은 태도와 동기에 미치는 확장형 읽기의 영향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읽기 행동의 결과, 즉 자신들이 제2언어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에 대한 즐거움과 경험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계속해서 책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능력에 적절한 많은 양의 책이나 자료들을 읽게 함으로써 제2언어 읽기 능력의 향상과 함께 읽는 것을 즐기도록 하는 접근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Krashen(1985)의 입력 가설에서 제시한 이해가능한 입력(i+1)과는 다른 'i-1'이라는 새로운 공식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자동성 훈련 (automaticity training)을 위해서는 새로운 언어 요소를 학습하기보다 다량의 시각적 어휘(sight vocabulary)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sup>3)</sup>. 그리고 '즐기도록'은 제2언어 읽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내적 동기를 중요시함을 의미한다. 또한 확장형 읽기는 교실 안과 밖에서 행해질 수 있는데, 교실 밖에서는 학생들이 책을 빌려 집에서 읽도록 하고 교실 안에서는 적어도 15분 정도 할애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 그들이 개인적으로 읽고 싶은 것을 읽게 하는 것이다 (Day & Bamford, 1998:7). 결국 확장형 읽기의 기본적인 접근방식은 '쉽고 재미있는 자료'로의 접근임과 동시에 '자발적' 접근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 자발적 접근이 지속되게 하려면 다독의 첫 경험 시 학생들이 제2언어로 글을 읽고 그것이 매우 즐겁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사의 의도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에 의한 자료 제공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확장형 읽기의 핵심은 학생의 언어 수준과 내적 동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어떻게, 어떤 자료를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 및 연구가 필요하다<sup>4)</sup>. 확장형 읽기가 다량의 독서를 권장하는 만큼 자료의 다양성 또한 필요한데, 유용한 자료의 범주는 언어학습자문학(Language

3) 시각적 어휘(sight vocabulary)는 읽기 지문에서 어린이가 보자마자 인지할 수 있으며 발음상의 기술이나 읽기 기술을 사용하여 해독할 필요가 없는 단어이다(박경자 외, 2001:362). 즉, 눈으로 보아서 자동적으로 인식되는 어휘이다.

4) 이는 교사 혼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고 학교장 및 기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안 읽는 도서 기증 방법과 재정적 투자를 통한 다양한 도서 확보가 필요하겠다. Day & Bamford(1998:116)는 좋은 도서관 만들기를 위한 조건으로 가능한 한 다양한 도서를 사고 도서에 '언어 수준'을 표시하고 학생의 언어적 수준을 고려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그들이 즐길 수 있는 책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는 등의 10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leaner literature), 아동문고, 잡지, 유용하고 쉬운 문학작품, 만화책, 번역물 등이 있다. 언어학습자문학은 Day & Bamford(1998)에서 사용된 용어로, 언어 학습자를 위해 쓰인 글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sup>5)</sup> 이는 문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문학과는 다른 기준을 갖게 되며, 언어적으로 어려운 교재는 글의 흐름 파악에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단순화(simplification) 및 상세화(elaboration)를 통해 확장형 읽기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단순화’란 원래의 텍스트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장문을 단문으로 수정하고 저빈도 어휘보다는 고빈도 어휘를 사용하며 문장 내에 어려운 어휘나 숙어 등을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등 익숙하지 않은 언어적 요인들을 익숙한 입력이 되도록 수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이지은 2008:11). 단순성은 실제성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성 자료를 학습자의 사상과 문화, 언어 수준에 맞게 표현한 것이며(Hill & Thomas, 1988:14, 신규철, 2006:125, 재인용), 단순화라는 것이 글의 특성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인 언어학습자를 염두에 두고 썼으므로(Day & Bamford, 1998:63)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화의 필요성과 가치를 잘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화된 텍스트는 의미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내용을 제거함으로써 학습자가 실제 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읽기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으며(Swaffar, 1985), 학습자가 알아야 할 언어적 요소를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제거시켜 버림으로써 외국어 습득에 필요한 입력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Long, 1996)는 등 단순화의 실제 교육적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단순화에 대한 대안이자 읽기 이해를 높

5) young adult literature, literature for youth, children's literature, graded readers, guided readers, 비문학 작품 등이 이에 속하며, 언어학습자라는 독자를 염두에 두고 집필한 것이다(Day & Bamford, 1998).

이기 위한 또 하나의 수정 방법이 ‘상세화’이다. 이는 텍스트의 어려운 어휘나 문법구조를 유지한 채 이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을 덧붙이거나 구조를 분명하게 하는 장치의 삽입 및 구두점 사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상세화된 텍스트는 기존 텍스트보다 길어지는 단점이 있으나 학습자가 그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제2외국어 읽기 교육에 더 효과적인 텍스트가 될 수도 있다(Yano 외, 1994). 이렇듯 단순화 및 상세화의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무수정 텍스트 보다 단순화 및 상세화를 한 텍스트가 어휘 학습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왔다(Brwon, 1985; Chung, 1995; Urona, 2000; Silva, 2000; Park, 2005).

한국어 읽기 어휘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추상 명사의 비율, 한자어의 비율, 함축어의 비율, 어절의 평균 음절 수 등이다(이충우, 2008). 재미한글학교 학습자 한국어 사용이 일상 대화 중심인 관계로 추상 명사나 한자어 사용이 한국의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이들 어휘에 대한 이해력이 낮다. 그러므로 이들의 언어 수준을 고려한 단순화 및 상세화를 거친 언어학습자 문학은 이상적인 교재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 2.2. 도서 지수와 도서 선정

쉽고 재미있는 자료를 통한 다독을 강조하는 확장형 읽기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서 도서의 난이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자료의 등급 체계화는 읽기 교육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며 도서 선택에 실용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학습자 읽기 능력과 도서 수준을 부합시킬 수 있는 표준화된 도서 지수가 개발되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렉사일 지수(L)이다. 현재 미국의 학생 절반 이상이 렉사일 지수 평가를 받아 도서 선택의 주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교사들 또한 도서의 렉사일 지수와 학생

의 수준을 파악하여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는데 사용하고 있다.<sup>6)</sup> 이에 맞추어 영어 교육에서는 학습자 수준 별로 다양한 분야의 도서 목록을 제시함과 동시에 여러 등급으로 개작하고 어휘 및 구문 설명을 포함한 영어 학습문고 시리즈를 내어놓는 등 학습자 이독성(readability)<sup>7)</sup> 향상용 도서를 개발하고 있다. 한국어교육에서는 이러한 학습자용 도서가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렉사일 지수와 유사한 도서지수인 리드 지수를 활용할 수 있다. 지수는 100~1,850까지 총 7단계가 있고 국내 2,000여 권의 도서에 리드 지수가 부여되어 있다. 자세한 단계 및 내용은 <표 1>과 같다.<sup>8)</sup>

<표 1> 리드 지수

단계	해당 리드지수	해당 학년
7급	100~480	초등 1, 2학년
6급	350~630	초등 3, 4학년
5급	560~840	초등 5, 6학년
4급	720~1,000	중 1, 2학년
3급	910~1,190	중3, 고등 1학년
2급	1,120~1,450	고등 2, 3학년
1급	1,320~1,850	대학생 이상 성인

- 6) 렉사일 지수는 개인의 읽기 능력 혹은 책이나 잡지 등의 텍스트 난이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표준화된 독서 능력 지수로 그 수준에 따라 190L~1385L까지 총 1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읽기 시험 혹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렉사일 지수를 받게 되며, 읽고자 하는 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그 텍스트에 부여된 렉사일 지수를 알 수 있다. 이 지수는 도서뿐만 아니라 신문 기사, 웹사이트 등의 자료에도 부여되어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www.lexile.com 참고).
- 7) 이독성(易讀性)은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독성과 유사한 용어로 쓰이고 있다.
- 8) (주)날말에서 7년의 연구개발로 특허를 획득한 LECTIO™ 지수에 기반한 것으로, 텍스트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의미의 어려움 및 구문의 어려움을 도서에 사용된 어휘의 난이도, 빈도수, 문장 길이를 이용하여 지수화한 것이다(www.kyoboread.co.kr 참고).

읽기 도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언어 수준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재미한글학교 학습자들에게 리드지수는 유용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 척도가 한국어 입력이 충분하지 않은 재미한글학교 학습자에게도 적합한지는 의문이다. 특히 한국어 텍스트를 충분히 접하지 못하고 있는 읽기 학습 상황을 고려하면 지수의 직접 적용이 적절한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리드지수 도서를 활용하여 연구 대상의 읽기 이해력을 측정함으로써 자료 수준과 학습자 실력의 적합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 3. 연구 대상과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연구 대상은 재미한글학교 학생 69명과 교사 37명이다. 교사는 모두 5년 이상의 한글학교 경력을 갖고 있으며, 학생의 정보는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대상(학생)의 정보

급수		초급	중급	고급	계
학생 수		22	24	23	69
성별	남	10	8	8	26
	여	12	16	15	43
나이 (만)	7	5	.	.	5
	8	7	7	.	14
	9	6	4	.	10
	10	3	5	.	8
	11	.	4	4	8
	12	1	2	6	9
	13	.	1	9	10
	14	.	.	3	3
15	.	.	2	2	

입학 나이 규정이 없는 한글학교 특성상 초급은 7~12세, 중급은 8~13세, 고급은 11~15세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급별 나이 편차가 있으며, 초등학생이 54(78.3%), 중학생은 15명(21.7%)으로 초등학생의 비율이 높다.

재미한글학교 학습자에게 확장형 읽기 교육을 적용시키는데 있어 읽기 자료 선정에 필요한 요소를 검토하고자 아래의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 문제 1. 재미한글학교 학습자의 읽기 현황 및 확장형 읽기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1-1. 학생의 영어 자료와 한국어 자료 독서 현황 및 선정 기준은 어떠한가?

1-2. 교사 및 학생이 선호하는 한국어 도서 기준 및 선호 분야는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리드 지수와 재미한글학교 학습자 읽기 수준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은 학생과 교사에게 설문조사를 하였고, 연구문제 2는 읽기 이해력 시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설문 내용은 확장형 읽기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자료 선정에 고려해야 할 요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고<sup>9)</sup> 개방형과 폐쇄형을 혼합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묻는 문항은 뒤에 구성하였다. 또한 읽기시험을 위한 텍스트 선정은 리드 지수 도서에서 선택하였다. 리드 지수 7단계 중 초급은 7단계, 중급은 6단계, 고급은 5단계 도서 내에서 자료를 채택하였으며, 책의 내용 중 한 부분을 발췌하여 읽기 이해력을 알아보았다.<sup>10)</sup> 이해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기

---

9) 읽기자료 선정(기준, 선호 분야, 양), 영어도서와 한국도서 독서 현황 및 인식(읽기 빈도, 선호 순위), 확장형 읽기에 대한 인식(활용 여부, 활용 빈도)을 조사하였다.

10) 재미한글학교 학습자 초급과 중급은 초등학생이고, 고급도 초등 고학년이 많으며, 이들의 낮은 한국어 능력을 감안하여 리드 지수 또한 1~3단계(초등 1~6학년)에 해

위해 ① 읽으면서 모르는 부분에 밑줄 긋기 ② 텍스트를 이해한 정도(%) 묻기 ③ 문제풀기, 이렇게 3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채택한 도서 및 문항 유형은 <표 3>과 같다.

<표 3> 읽기 시험 텍스트로 선정한 도서 및 문항 유형

급수	리드지수	책이 속한 분야	도서 제목	문항유형 & 수
초급	7급, 200	유아>그림책 일반>유럽그림책	친구야 난 네가 참 좋아	객관식 5
중급	6급, 370	유아>그림책 일반>세계명작그림책	도서관에 간 사자	객관식 5
고급	5급, 710	어린이>초등1~6학년공통>자기계발>사회교육/리더십	판매왕 지그 지글러	객관식 5

설문 도구는 이메일로 각 학교 교사와 학생에게 배부하였다. 필요에 따라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sup>11)</sup>을 사용, 각 학교 담당자가 연구자가 제시한 기준에 맞는 학생과 교사에게 설문지를 전달하여 설문하게 하고 이를 수합하여 연구자에게 전달하는 방식도 함께 했다. 읽기 시험은 교사나 학부모가 시험 전에 유의 사항을 설명해 주었고<sup>12)</sup> 시험 시간은 8분으로 하였으며, 추가 시간은 2분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연구문제 1은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연구문제 2는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필요시 교사에게 심층면접을 하였다.

당되는 급수와 비교하였다. 그리고 해당 텍스트는 3개의 텍스트를 골라 한글학교 교사 3명의 의견을 구하여 텍스트 선정의 적합도를 높였다.

- 11) 연구자가 특정연구의 기준에 부합하는 몇 사람을 찾아서 해당 모집단의 구성원들을 추가적으로 소개해달라고 요구하게 하는 것이다(문숙경, 2002:93).
- 12) ‘이해도 측정을 위한 3가지 방법’을 잘 표시하도록 하는 설명으로, 특별히 모르는 어휘 밑줄 긋는 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줌으로써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정확한 읽기 이해력 측정이 가능하도록 교사 및 학부모에게 강조했다.

## 4. 연구 결과 및 논의

### 4.1. 학생의 영어 & 한국어 독서 현황 및 선정 기준

재미한글학교 학습자의 영어 도서와 한국어 도서 독서에 대한 경향을 살펴보는 것은 확장형 읽기 보급 시 필요한 요소라 판단된다. 이에 학생들의 영어 및 한국어 도서 읽기 빈도와 도서 선정 기준을 살펴본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학생의 영어 도서 & 한국어 도서 독서 현황

영어 도서 독서현황			한국 도서 독서 현황		
읽기 빈도	도서 선정		읽기 빈도	도서 선정	
	기준 1	기준 2		기준 1	기준 2
0권 1(1.4)	흥미 49(71.0)	교사추천 18(26.1)	0권 17(17)	부모권유 50(72.5)	흥미 32(46.4)
1~2권 6 (8.7)	읽기수준 8(11.6)	권장도서목록 14(20.3)	1~2권 35(50.7)	흥미 9(13.0)	부모권유 18(26.1)
3~4권 22(31.9)	부모권유 6(8.7)	흥미 13(18.8)	3~4권 11(15.9)	수준 7(10.1)	수준 14(20.3)
5~6권 20(29.0)	교사추천 2(2.9)	읽기수준 13(18.8)	5~6권 4(5.8)	교사추천 2(2.9)	교사추천 4(5.8)
7권 이상 20(29.0)	권장도서목록 3(4.3)	부모권유 9(13.0)	7권 이상 2(2.9)	권장도서목록 1(1.4)	권장도서목록 1(1.4)
	기타 1(1.4)	기타 2(2.9)			

\* 숫자는 빈도, ( ) 안은 백분율임. 계 69(100)

영어 도서는 한 달에 5~6권, 29%, 7권 이상, 29%로 5권 이상을 읽는 학생이 58%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한국 도서는 1~2권이 50%를 넘고, 안 읽는 학생이 17%로 한국 도서와 영어 도서 독서 현황이 반대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 도서도 적합한 독서 환경이 주어진다면 독서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수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읽기 자료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영어 독서는 본인의 흥미가 71%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 도서는 부모님의 권유가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한국어 읽기가 부모님의 노력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도서를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교육에 대한 의지가 강한 부모님이 학생에게 책을 제공해주는 경우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어 읽기 자료 권장을 위해서는 학생의 수준과 요구에 적합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동시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자료를 국외로 공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 하겠다.<sup>13)</sup>

## 4.2. 확장형 읽기 실시를 위한 도서 기준, 장르 및 도서량

### 4.2.1. 교사의 읽기 자료 선정 및 확장형 읽기에 대한 활용 인식

확장형 읽기를 위한 자료 선정 시, 교사들이 교육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선정 기준과 추천 분야, 도서의 양, 온라인에서 실시되었을 때 활용하겠다는 응답은 <표 5>와 같다.

---

13) 연구자의 생각으로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읽기 자료 제공이 합당하다는 판단이 있으므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활용하겠는가?’에 대한 문항을 포함시켰다. 결과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 내용은 4.4.2.에서 살필 것이며, 이후 사이버 공간에서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lt;표 5&gt; 교사의 읽기 자료 선정 기준 및 추천 분야, 독서 빈도

한국 도서 선정 기준		한국 도서 추천 분야 <sup>14)</sup>		독서 빈도 (한 달)	사이트 활용 여부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입기수준 23(62.2)	흥미 18(48.6)	한국전래동화 20(54.1)	세계명작동화 11(27)	0권 0(0)	최대한활용 0(54.1)
흥미 14(37.8)	입기수준 12(32.4)	세계명작 10(27)	한국전래동화 11(54.1)	1~2권 15(40.5)	자주 활용 8(21.6)
유익한 장르 0(0)	유익한 장르 6(16.2)	잡지 2(5.4)	잡지 6(5.4)	3~4권 17(45.9)	가끔 활용 5(13.5)
교사권유 0(0)	교사권유 (2.8)	만화 3(8.1)	만화 6(8.1)	5~6권 4(10.8)	살펴보고 정함 4(10.8)
부모 권유 0(0)	부모권유 0(0)	공상과학 0(0)	공상과학 1(2.7)	7권 이상 1(2.7)	활용안함 0(0)
		기타2(5.4)			

\* 숫자는 빈도, ( ) 안은 백분율임. 계 69(100)

교사의 한국어 도서 선정 기준은 학생의 수준(62.2%)을 가장 우선으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흥미(37.8%)를 꼽았다. 언어 교육적 입장에서 수준을 중시하는 교육자의 인식을 알 수 있다. 추천 분야는 한국전래동화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기타로 창작동화와 함께 한국 역사와 한국 문화 관련 책이 있어 읽기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하고자 하는 의도도 보였다. 적합한 읽기 추천 빈도는 3~4권으로 1주일에 한 권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 사이트 활용 여부는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54.1%, 자주 활용하겠다고 21.6%로 활용 의지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사와의 심층 면접에서는 수업 시 활용하거나 참고할 읽기 자료가 매우 부족함을 피력하며 다양한 읽기 자료의 제공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

14) 이 분야는 현장 교사들이 학생의 도서 취향 등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설문 실시 전에 3명의 한글학교 교사들에게 요청하여 미국의 아동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책의 분야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그리고 나머지 선호하는 도서 분야는 기타 난을 두어 직접 쓰게 하였다.

사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하였다. 동시에 학습자 수준에 맞게 개작한 자료는 수업에 직접 활용 가능하므로 단순화와 상세화가 이루어진 자료가 매우 이상적임을 강조하였다.

#### 4.2.2. 학생의 읽기 자료 선정 및 확장형 읽기에 대한 활용 인식

확장형 읽기를 위한 자료 선정 시 학생들이 선택한 기준과 선호 분야, 도서의 양, 온라인에서 실시되었을 때 활용하겠다는 응답은 <표 6>과 같다.

<표 6> 학생의 읽기 자료 선정 기준 및 선호 분야, 도서 빈도 및 인식

한국 도서 선정 기준		한국 도서 선호 분야		희망 도서 빈도(한 달)	사이트 활용 여부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흥미 42(60.9)	읽기수준 25(36.2)	한국전래동화 25(36.2)	세계명작동화 23(33.3)	0권 0(0)	최대한 활용 18(26.1)
읽기수준 14(20.3)	흥미14 (20.3)	만화 22(31.9)	한국전래동화 17(24.6)	1~2권 22(31.9)	자주 활용 10(14.5)
유익한 장르 7(10.1)	유익한 장르 13(18.8)	세계명작동화 13(18.8)	만화 12(17.4)	3~4권 21(30.4)	가끔 활용 24(34.8)
교사 추천 6(8.7)	교사 추천 13(18.8)	잡지 6(8.7)	공상과학 8(11.6)	5~6권 6(8.7)	살핀 후 정함 12(17.4)
	부모 권유 2(2.9)	공상과학 3(4.3)	잡지 6(8.7)	7권 이상 11(15.9)	활용 안함 5(7.2)
	기타 2(2.9)		기타3(4.3)		

\* 숫자는 빈도, ( ) 안은 백분율임. 계 69(100)

학생은 한국어 도서를 선정할 때 본인의 흥미를 1순위, 읽기 수준을 2순위로 선정하였다. 교사들의 인식과 가장 대별되는 결과로 수준과 흥미의 적절한 조화를 중심으로 도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도서 선호 분야로는 1순위로 한국전래동화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의 한국문화에의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며 학생의 문화적 정서적 환경을 잘 고려

하여 적절한 전래동화를 선정할 때 읽기 능력 향상 및 문화교육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고무적인 수치라 하겠다. 기타로는 역사 이야기, 추리 소설, 청소년용 소설이 있어 고급 학생용의 충분한 내용을 갖춘 책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 도서가 자유로이 공급될 때 한 달에 어느 정도 읽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1~2권이 31.4%로 가장 많지만, 3~4권이 30.4%로 근소한 차이인 것을 보아 한국 도서 읽기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7권 이상 읽겠다는 학생도 15.9%가 되는 것은 학생들에게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줄 필요성과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사이트로 읽기 자료가 제공될 경우 어느 정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으로는 가끔 활용하겠다(34.8%)가 가장 높았고 최대한 활용하겠다(26.1%)가 두 번째로 높아 온라인을 통해 공급되는 읽기 자료 또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4.3. 리드지수와 학생의 읽기 수준과의 관계

#### 4.3.1. 읽기 이해도 및 시험 결과

읽기 시험에 앞서, 학생이 주어진 텍스트를 읽고 얼마나 이해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문항(위의 글을 몇 % 정도 이해한 것 같습니까?)을 만들었다. 학생 스스로의 판단이라 객관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직관적 이해도 또한 측정의 한 방법일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직관적 이해도와 시험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이해도와 점수와의 상관계수

		이해도	점수
이해도	Pearson 상관계수	1	.778**
	유의확률 (양쪽)		.000
점수	Pearson 상관계수	.778**	1
	유의확률 (양쪽)	.000	

\*\* p < .01

두 변수는 .01 수준(양쪽)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계수는 .778로 상관관계가 높음으로 입증되어 학생의 자가진단 이해력 정도의 객관성이 확보되었다. 아래 <표 8>은 각 급별 이해도(%) 및 시험 점수(5점 만점)에 관한 기술통계값이다.

<표 8> 이해도와 시험 점수의 기술통계값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값	상한값			
					이해도	초급			22
	중급	24	50.83	19.318	3.943	42.68	58.99	20	90
	고급	23	60.00	13.143	2.740	54.32	65.68	40	80
	계	69	54.49	25.468	3.066	48.37	60.61	0	100
점수	초급	22	2.72	1.695	.361	1.98	3.48	0	5
	중급	24	2.25	.989	.202	1.83	2.67	0	4
	고급	23	2.87	.968	.202	2.45	3.29	1	5
	계	69	2.61	1.263	.152	2.31	2.91	0	5

이해도 면에서 초급 52.73%, 중급 50.83%, 고급 60.0%로 평균 54.52%의 낮은 이해도를 보이고 있다. 세 급수 중에서 고급이 가장 높은 이해도를 보였으며, 중급이 가장 낮은 이해도를 보였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

다.<sup>15)</sup> 시험 점수 또한 2.06~2.73의 분포를 보이며 세 집단 평균 2.57을 나타내 점수 역시 중간을 약간 상회하는 점수를 보였다. 이해도와 마찬가지로 고급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중급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sup>16)</sup> 이는 초급 어절 수가 69인데 비해, 중급 어절 수는 129로 중급에서 어휘의 수가 거의 두 배로 증가한 데서 오는 결과라는 판단이다.<sup>17)</sup>

#### 4.3.2. 어휘 점유율<sup>18)</sup>

어휘는 언어 습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어휘 지식과 읽기 능력의 상관관계 또한 매우 높다는 것은 다수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Mcworhter, 2005, Anderson, 2003; Hedge, 2000; Lamborg & Lamb, 1980; Thronkike, 1973, Jenkinson, 1973, 이정민·김영주, 2010:32, 재인용). 이에 학습자들에게 읽기 시험으로 배부된 텍스트를 읽으면서 모르는 어휘에 밑줄을 치게 하여 학습자의 어휘 점유율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시는 어절 단위로 하게 하였는데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표시

15) <표 9>는 이해도와 시험점수의 집단별 차이를 알아본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이다.

<표 9> 이해도와 시험점수의 집단별 일원배치 분산분석

		제공합	df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이 해 도	집단-간	1087.549	2	543.775	.834	.439
	집단-내	43019.697	66	651.814		
	합계	44107.246	68			
점 수	집단-간	4.962	2	2.481	1.583	.213
	집단-내	103.472	66	1.568		
	합계	108.435	68			

위 결과와 같이 유의확률은 .439, .213으로 급수에 따른 이해도 및 시험점수에 대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 16) 이 또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 17) 어절수 관련 비교는 다음 쪽에서 다루었다.
- 18) 텍스트 중에서 아는 어휘가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뜻으로 연구자가 편의를 위해 명명한 용어이다.

하게 하면 더욱 정밀한 측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한국어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에겐 역부족이므로 오히려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또한 전체 문장과과의 비율을 살피기에도 어절 단위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동일 어휘가 반복되는 경우는 똑같이 모르는 어휘로 간주하고 통계에 포함하였으며 표시에 있어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된 5개 시험은 통계에서 제외하였다<sup>19)</sup>. 각 급별 기술통계는 <표 10>과 같다.

<표 10> 모르는 어휘수 기술통계값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값	상한값		
초급	20	9.95	3.252	.727	8.43	11.47	5	15
중급	23	18.61	2.675	.558	17.45	19.77	13	24
고급	21	17.81	4.557	.994	15.74	19.88	8	25
합계	64	15.64	5.229	.654	14.33	16.95	5	25

각 급수마다 본문의 길이가 달라 어휘 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의 급별 평균값은 단지 참고용이며,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 급별 텍스트의 어절 통계 및 모르는 어휘와의 비율, 어휘 점유율을 살펴보았다.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각 급별 어휘 점유율

급수	초급	중급	고급
어절수	67	129	160
모르는 어휘 비율	14.85%	14.42%	12.19%
어휘 점유율	85.15%	85.58%	87.81%

19) 문장 단위로 모두 줄을 치거나, 이해도 점수가 떨어지는데 줄을 1~2개를 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초급 85.15%, 중급 85.58%, 고급 87.81%로 급별 차이가 크지 않으며, 세 급수 평균 어휘 점유율은 86.18%이다. Nation(2001)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긴 길이의 텍스트를 어려움 없이 읽기 위해서는 98%의 문지방 단계가, 읽기 과정에서의 부가적 정보사용 또는 교수적 뒷받침이 가능할 경우 95%의 문지방 단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새롬, 2011:55). 이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재미한글학교 학습자들이 읽기 자료를 접했을 때 문지방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9.82%의 어휘력이 부족하다. Day & Bamford(1998)에서 다독에서 필요한 읽기 자료의 수준을 ‘i-1’으로 제안하였고 한 쪽 당 네 단어에서 다섯 단어 이상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자료를 피하도록 하는 등 학습자 수준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읽기 자료 제공을 피력한 점을 미루어, 위 어휘점유율과 비교하였을 때 리드 지수 도서를 재미한글학교 학습자 수준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이 발견된다. 다양한 어휘 입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한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지수를 국외 학생들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지수로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한 면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도서를 직접 적용하기 보다는 어휘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단순화 및 상세화를 통한 개작을 통하여 이득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ran(2006)은 자신의 제2언어 학습 경험을 통해 개발한 ‘self improving reading plan’을 소개하였는데 확장형 읽기 연구자들이 사전 사용을 금하였지만 모르는 어휘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한 다독을 펼쳐야 한다는 ‘수정된 다독(modified extensive reading)’을 주장하며 읽기에 있어 어휘 학습을 강조하였다. 재미한글학교 학습자 또한 다양한 어휘 입력이 풍부하지 않은 학습 상황을 고려하여 ‘수정된 다독’의 형태로 어휘 점유율을 높인 후 다독에 임하는 방법 또한 효율적일 것이다. 나아가 앞서 언급한 언어학습자 문학과 학습자 수준에 맞게 여러 등급으로 개작하고 어휘 및 구문 설명을 포함한 학습문고 시리즈 개발에 대한 시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대두된다.

## 5. 결론

본 연구는 확장형 읽기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재미한글학교 학습자 읽기 현황 및 인식을 학생의 영어·한국어 도서 독서 현황 및 선정기준, 교사와 학생이 선호하는 한국 도서 기준 및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읽기 자료 선정 시 리드 지수를 객관적 기준으로 적용할 때, 학습자 수준과의 관계를 읽기 시험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재미한글학교 학습자의 영어 도서와 한국어 도서 읽기 현황은 영어 도서 독서 현황이 월등히 높지만 이는 학습자의 읽기 습관에 대한 현황을 말해주는 것으로 적합한 도서가 풍성하게 제공되면 한국어 도서의 독서 비중 또한 높일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 확장형 읽기 실시에 대한 긍정적 검토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 둘째, 교사와 학생이 선호하는 한국어 도서 선정 기준은 교사는 학습자 수준, 학생은 흥미를 첫째로 선택하였으므로, 언어적 수준 및 학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와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재미있고 유익한 자료를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호 분야로는 학생·교사 모두 한국전래동화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및 학습 의욕으로 해석 가능하므로 읽기 교육 외에 한국문화 교육 또한 병행할 수 있는 고무적인 수치라 하겠다. 셋째, 합당한 도서 권수로 교사는 일주일에 한 권, 학생은 한 달에 1~2권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권을 선택한 학생도 30.4%, 한 달에 7~8권을 읽겠다는 학생도 17.4%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읽기 자료를 적극, 자주 활용하겠다는 의견도 40%를 넘어 자발적 독서가 이루질 수 있도록 흥미 유도를 한다면 한국어 도서 확장형 읽기 교육의 실시 및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넷째, 리

드 지수 도서와 학습자 수준의 관계를 읽기 시험을 통해 이해력, 어휘 점유율을 살펴본 결과, 50%를 약간 상회하는 이해력과 점수를 보이고 있고 어휘 점유율은 86%로 98%~95%의 문지방 단계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므로 리드 지수 도서의 직접 적용보다는 단순화 및 상세화를 통한 개작이 필요하며, 학습자를 위한 언어학습자문학 개발과 학습자 수준에 맞게 여러 등급으로 개작하고 어휘 및 구문 설명을 포함한 학습문고 시리즈 개발 등 언어학습을 위한 읽기 자료 개발이 적극 시도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재미한글학교 학습자에게 확장형 읽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조사를 통해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현황 및 인식을 살필 수 있었고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학습자 수준에 상응하는 읽기 자료 개작 및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과거,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목적이었던 재외동포 학습자의 한국어가 능력 있는 세계인으로 자랄 수 있는 주요 요소로 변하고 있는 시대에, 확장형 읽기 실시는 재외동포 한국어 학습의 기존 한계를 극복하는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 믿으며, 그 기초 조사로서의 본 연구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국외라는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실질적 적용을 위한 연구 및 시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 <참고 문헌>

- 강민혜(2008). 확장형 읽기를 통한 읽기 능력 신장 및 활용 방안 연구, 미출간 석사 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 김경표(2009). 확장형 읽기를 활용한 한국어 읽기 교육 방안,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 김수정(2009). 한국어 교육에서 확장형 읽기 활동을 통한 독해력과 어휘력 증진 효과 -신문기사문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4호, 연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학당. 129쪽~156쪽.
- 김정하(2007). 다독이 읽기 속도와 한국어 학습 동기 부여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

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김향미(2003). 한국어 교육 읽기 자료 개발에 관한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문숙경(2002). 『Web상에서의 실시간 설문조사』. 도서출판 두남. 서울.

박경자 외(2001). 『응용언어학 사전』. 경진문화사. 서울.

박미영(2013). 확장형 읽기를 위한 한국어 학습자용 수준별 도서 개발 기준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우형식(2008). 한국어 교육에서 열린 읽기 활동의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우리말 연구>, 22집, 우리말학회. 185쪽~209쪽.

우형식(2011). 한국어 읽기 텍스트의 실제성과 단순화에 대한 반성적 접근, <우리말 연구>, 28집, 우리말학회. 285쪽~314쪽.

우형식·김수정(2011). 확장형 읽기 활동을 위한 한국어 읽기 자료의 선정과 등급 구분, <이중언어학>, 45호, 이중언어학회. 133쪽~165쪽.

이선영(2012). 확장형 읽기를 활용한 한국어 읽기의 효과분석-학문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중언어학>, 50호, 이중언어학회. 167쪽~192쪽.

이정민·김영주(2010). 한국어학습자의 어휘력과 언어능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응용언어학> 26(2)호, 한국응용언어학회. 27쪽~49쪽.

이지은(2008). 이독성을 높이기 위한 텍스트 수정 방안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성태제(2010). 『현대 기초통계학의 이해와 적용』(개정 5판). 교육과학사. 서울.

신규철(2006). 『자발적 다독법을 통한 통합적 읽기교육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윤새롬(2011). 알고 있는 단어의 텍스트 점유율이 읽기 이해 및 우연적 어휘 학습에 미치는 영향, <응용언어학>, 27(1)호, 한국응용언어학회. 53쪽~76쪽.

이충우(2000). 어휘력과 읽기, 노명완·박영목 외, 문식성 교육연구, 한국문화사, 406-415.

이혜영(2010). 재미교포 초급 학습자와 비교포 초급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비교, <이중언어학>, 44호, 이중언어학회. 275쪽~294쪽.

정아름(2010). 다독과 독서일지가 한국어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영남대학교.

조경희, 이정원(2010). 확장형 읽기를 통한 고등학교에서의 영어 읽기 교육, <영어교육>, 65권 4호, 한국영어교육학회. 343쪽~371쪽.

Bamford, J. & R. Day.(2000). *Extensive Reading in the Second Language Classroo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rown, R. L.(1985). A comparison of comprehensibility of modified and unmodified ESL reading materials. *University of Hawaii Working Papers in ESL*, 6(1), 49-79.

Brusch, W.(1991). The role of reading in foreign language acquisition: designing

- an experimental project. *ELT Journal*, 54(2), 156-163.
- Claire Ikumi Hitosugi & Richard R. Day(2004). Extensive reading in Japanese,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Vol. 16(1), 20~39.
- Chung, H.(1995). Effects of elaborative modification on second language reading comprehension and incidental vocabulary learning. *University of Hawaii's Working Papers in ESL*, 14(1), 27-61.
- Chung, S. C., & Dunkel, P.(1992). The effect of speech modification, prior knowledge, and listening proficiency on EFL lecture learning. *TESOL Quarterly*, 26, 345-374.
- Park, M.(2005). The effects of simplified and elaborated texts on Korean EFL learners' reading comprehension: Using free recall task.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Urano, K.(2000). Lexicals implification and elaboration: Sentence comprehension and incidental vocabulary learn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 Silva, T.(2000). Text elaboration and vocabulary learn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 Elley, W. B.(1991). Acquiring literacy in a second language: The effect of book-based programs, *Language Learning*, 41(3), 375~411.
- Elley, W. B. & Mangubhai, F.(1981). The impact of a book flood in Fiji primary schools, Wellington: *New Zealand Council for - 198 - Educational Research*.
- Grabe, W.(2010). Fluency in reading: Thirty-five years later,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22(1), 71~83.
- Krashen, S. D.(1985). *The input hypothesis: Issues and implications*. New York: Longman.
- Krashen, S. D.(1993). The case for free voluntary reading. *The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50(1), 72~82.
- Leung, Y. L.(2002). Extensive reading and language learning: A diary study of a beginning learner of Japanese.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14(1), 68~81.
- Long, M. H.(1996). The role of the linguistic environmen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W. C. Ritchie & T. K. Bhatia (Eds.), *Handbook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443-468). New York: Academic Press.
- Palmer, H. E.(1968). *The scientific study and teaching of languag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ichard Day & Julian Bamford.(1998). *Extensive Reading in the second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waffar, J. K.(1985). Reading authentic texts in a foreign language:A cognitive model. *The Modern Language Journal*, 69, 15-34.
- Takayuki Nakanishi.(2015). A Meta Analysis of Extensive Reading Research, *TESOL Quarterly* Vol. 49 No. 1, 6~37.
- Thornbury, S.(2006). *An A-Z of ELT*, Oxford, Macmillan.
- Tran, Anh(2006). Modified Extensive reading for English-Language learners, *Reading Improvement*, Winter 2006, 43, 4, *ProQuest Education Journals*, 173-178.
- Yano, Y., Long, M. H., & Ross, S.(1994). The effects of simplified and elaborated texts on foreign language reading comprehension. *Language Learning*, 44(2), 189-219.

김태진(Kim Taejin)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 20. 201호  
전화번호: 02-2285-1070  
전자우편: jinedu21@naver.com

접수일자: 2016년 10월 31일  
심사(수정)일자: 2016년 11월 20일  
게재확정: 2016년 12월 15일